

6. 기도

하나님께 응답하고

- 들은 말씀에 대한 응답부터 합시다.
-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치 않으면 다시 여쭙어 봅시다.
- 잘못을 깨달았으면 구체적으로 회개합시다.
-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 욕심을 버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관심이 많습니다. 응답이 쉽게 들리지 않으면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독촉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기도에 잘못된 내용이나 진실하지 못한 기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부탁이나 지시나 책망이나 약속에는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꼭 응답해야 하고 병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이처럼 내 실속만 차리고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 들은 말씀에 대한 응답부터 합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대화로 이루어진다면, 말씀을 귀담아 들은 후 그 말씀에 대한 응답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님이 것처럼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주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너

무나 고맙습니다. 왜 저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좋은 본보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시편을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반응과 응답을 기뻐하십니다.

예) 사무엘하 7:18-29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응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저로 이런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여호와 하나님이어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밖에는 참 하나님이 없음이니이다...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하나님이어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계속하여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시간’에 들은 명령이나 경고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는 응답과 순종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28-29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쉼과 평안을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라고만 기도한다면 문제입니다. 먼저 “예, 제가 주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왜 이처럼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살피고 그 명령과 요구에 순종하면서 약

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의 기도에서 이와 같은 순종의 고백이 거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합시다.

☉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치 못하면 다시 여쭙어 봅시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면서도 여쭙어 보는 일이 없다면 대화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여쭙어 보아야 합니다.

예) 창세기 15:1-9

하나님 :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 :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아브람 : 예, 믿겠습니다.

하나님 : 이 땅을 네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아브람 :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기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우리의 대화가 이처럼 친근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한 것을 계속 물어 봅시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이방 종교인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 의식이므로 문장이나 내용이 거창하고 신비롭고 성스러워야 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평범한 말로 쉽고 짧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는 유창한 기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잘못을 깨달았으면 구체적으로 회개합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많이 지적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내 잘못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적용한 대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내 잘못을 빠짐없이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것까지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편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응답하는 이 모든 것이 실천을 위함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부분도 바로 이 실천이라

고 하겠습니까. 실천이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크다고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2:14-26에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전도하거나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13-21은 우리에게 실감나는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제자들이 “주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오천 명이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일까지 제자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어떤 여의사가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그 병원에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가난한 아주머니가 병에 걸려서 이 여의사가 선교사에게 무료로 치료해 주자고 건의했더니 선교사는 “선생님이 먼저 도우실 마음이 있습니까?”라고 물어 보았습니

다. 이 여의사는 갑자기 받은 질문이어서 얼떨떨해하다가 “예, 저도 돕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자기 호주머니에서 얼마를 뚝고 병원에 서도 혜택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여의사는 외국 선교사 들이나 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남을 것처럼 잘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도울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한다면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힘이 없거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훈련받고 자라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항상 “하나님, ...하게 해 주십시오. ...을 도와 주십시오”라고만 하고 반대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내 믿음은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나는 앉아서 “주님, 제가 일어나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앉은뱅이 신앙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처음 해 보면 좀 생소하고 건방진 것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고쳐 하도록 노력합니다.

☁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실천을 위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

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묵상의 시간’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더라도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구해야 하는데 이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존의 믿음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뢰하는 마음과 자세)을 지속적으로 갖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며, 그 기도와 함께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자세에 대한 적절한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욕심을 버리도록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면 믿음은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묵상의 시간’을 잘 하고도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기 욕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용에서 이미 생각했던 것이지만 내 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적어 본다면지 녹음을

해놓고 들어 보십시오. 또는 나 자신의 훈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십시오.

‘묵상의 시간’에 서로 간증을 나누고 나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때 서로의 기도에 주의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기 욕심에 얽매인 기도가 아닌가 살펴봅시다.

예) 마가복음 10:35-45

여기 35절에 보니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철없는 믿음을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들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 기도(욕심)를 성취하고서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상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깨달음에 따라 바르게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

기에 반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묵상의 시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무나 분명하게 수없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묵상의 시간’과 관계되는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 기도에 대해서는 다른 책자들을 참고하십시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하면 잘못될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할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철야기도나 금식기도 때도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7. 실천

하나님과 동행하자

-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 훈련을 받아야 성숙해집니다.
- 외로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묵상의 시간’이 실생활에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가 무너지고 맙니다. 흔히 하는 표현대로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힘을 얻으면 나가서 전도하자고 합니다. 사실 영양섭취를 하고 나서 활동하지 않으면 비만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이란 꼭 전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전체에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신앙의 병에 걸립니다.

가끔 어느 교회 교인은 귀가 높다느니 신자들이 귀만 점점 높아진다는 말을 듣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귀가 높은 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산 교훈이며 실천을 위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의 연구나 학위 논문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극히 쉬운 말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신학강의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으면 무엇합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을 모르고 고고학이나 성경 배경을 몰라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에 대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신학적 설명을 듣지 못해서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대로 성경공부나 설교나 강의나 신학이 높아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천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묵상의 시간’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더 단순하게 하십시오. 성경공부에 열을 올리거나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우선 쉬운 것부터 깨달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실천이 없는 성경 지식은 교만에 빠질 위험이 크고 남을 비판하는 자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무서운 병에 걸릴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실천이 없는 성경공부는 죽은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

실천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기뻐하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롬12:2).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
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1-23).

특히 뒷부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
무리 주의 이름으로 교회봉사나 전도사업이나 은사집회나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크게 방해가 되고 문제
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에 주의해서 말씀을 듣고 그 지시대로 실
천해야 합니다. 함부로 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멋있는 설계를 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꿈이나 비전은 다 불법입니다.

잠언 29:18에 보면 “묵시(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히(제멋대로) 행하거니와 율법(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의 꿈(비전)을 만들게 되면 방자하게 됩니다.

성경말씀과 우리의 실천을 따로 떼어놓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나 죄인은 다
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 훈련을 받아야 성숙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배웠더라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묵상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운 대로 실천합시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만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합시다. 그때 내 욕심이나 고집이나 비전에 얽매이지 말고 이를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팍하지 않습니다. 깊고 넓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선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우는 대로 실천해 갈 때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 가야 하고(벧전2:2)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히5:13-14).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식물은 어려운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는 초보라고 했습니다(히6:1). 단단한 식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며, 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각(知覺)을 사용하고 연단(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우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부터 실천해 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실천해 보아야 나의 무력함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도 알게 되고, 큰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도 실천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보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생활이 자라 갑니다.

이런 쉬운 것부터 훈련되어져야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예배당을 신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등등을 점차 배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하거나 좋은 직장이 생기게 되면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마음대로 규정해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식으로 간단히 결론을 내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과오를 되풀이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대하셨고(삼하7:1-17), 사도행전 7:46-50 등 여러 곳에서 우리는 그때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외로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5:21-24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9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곁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든지 기도원에나 가든지 하면서 보내는 생활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 단명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큰 수고를 했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5-8을 보십시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라고 하

셨을 때도 이러한 고통을 뜻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15:19). 하나님의 뜻(말씀)대로 실천하려면 이런 미움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마7:14)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고독한 길이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의 삶도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고난과 외로움의 길을 가리키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이 중대한 사실을 망각하면 ‘묵상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달콤한 말씀만 귀에 들릴지도 모릅니다. 구약에 약속된 축복들을 읽으면서 “내 말과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이라는 중요한 전제조건은 보지 못하고 축복의 약속만 보게 되며, 그 축복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고난) 후에 주어질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영적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과오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외로운 길을 바로 깨달았으므로 비옥한 땅을 조카인 롯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메마른 땅에서 고독하게 살았고, 약속의 땅이 지상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집도 짓지 않고 천막

에서 외로운 나그네 생활을 했다고 하였습니다(히11:8-10, 13-16).

착각에 빠지지 맙시다. 가롯 유다처럼 착각하지도 맙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8. 지도자의 도움

- 평신도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 평신도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교회 지도자들(목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평신도에게 주신 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책을 다 기록하고 레위인에게 맡겨서 이를 백성에게 수시로 들려 주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아...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31:11-13).

만일 일반 백성이나 자녀들이 듣고 이해할 수 없다면 왜 이렇게 명하셨겠습니까? 또 듣고 잘못 알아들을 책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롬1:7),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엡1:1)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복음서도 사도행전도 모두 그렇습니다. 물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평신도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함부로 읽고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 왔습니다. 중세 때 로마 카톨릭에서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
니다. 소위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성직자의 가르침만 따라야
한다고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직자에게 의존
하고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직자들의 그릇된 해석과 가르침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잘못 믿었으며,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가 구
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
를 깨달은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이에 항의하고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여 평신도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일 때문에
순교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다시 찾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귀중한 진리를 새삼스
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소위 ‘만인제사장’ (萬人祭司長)이
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평신도들도 성직자(목사)와 아무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사상에서 가장 중
요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도 이 주장
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들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요 특권인 이 성경말씀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

다. 지도자의 해석이나 설교만 듣고 직접 성경을 보지 않는 평신도들이 복음을 잘못 깨닫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일들은 지금에 와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는 듣지 못하는 책임이 평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책임 여러분의 손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나는 깨달을 능력이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해석할 줄 모른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무식한 초신자였고 목사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성경책도 다 갖고 있지 않았고 한 교회에 겨우 한 권 정도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앞의 설명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을 도와주시려고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평신도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깨닫고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십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과 그들에게서 훈련받은 지도자들(목사)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십시오.

물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지도자들(목사)에게 의존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도움은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고 하지 마십시오. 지도자와 교사를 주시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서 충분하다. 지도자나 교사가 필요없다.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오해입니다. 아무리 평신도에게 주신 성경책이고 책임과 능력이 평신도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도움을 받아서 함께 자라 가고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분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11-12).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로 성경을 이해하는 일을 도와서 마침내 여러 사람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될 때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잘못된 집단이나 단체에 밀려 다니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엡4:13-14).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4:16)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동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적용’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서로 나누고 발표하는 것이 크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도움 없이는 지체가 자랄 수 없고 교회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체 사이의 도움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깨닫는 일에는 성경 교사(목사나 기타 교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교사인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꼭 받아야 합니다. 학자의 도움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단(이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들이야 더욱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배우고 나면 당장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에게서만 성경을 배운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자들의 직접적인 도움이든지 목사님을 통한 간접적인 도움이든지 꼭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교회가 오랜 역사에 걸쳐서 연구하고 설명해 온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해석을 갑자기 내세우거나 기성 교회나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나 교회나 집단을 경계하십시오. 이단은 모두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 잘못되었다면 지금까지는 참 교회가 없었다는 논리가 될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교사(학자)의 도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지도자

(목사, 전도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신학자나 신학교 교수도 자기
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도움(목회 양육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
자도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 전도단체나 학생단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성서유니온
도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전도단체입니다. 이들이 복음 전
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들
을 통하여 더 쉽게 복음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이들의 도
움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단체
들도 교회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받아야 하
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르침(교사)의 도움과 양육(목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단체는 이 점을 주의하
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원리가 개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목사, 전도사, 장로)와 평신도 사이에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지
체나 모임이나 그룹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
히 성경공부에 있어서 청년회나 학생회나 구역 모임과 같은 모임들
이 지도자 특히 목회자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함은 너무나 당
연한 일입니다. 물론 맹종하라거나 중세 때처럼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너는 이것들

을 명하고 가르치라...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딤후4:11,13). 이와 유사한 말씀은 수없이 많습니다.

9. 교역자들에게 참고될 말

- 프로그램을 개발하십시오.
- 성경본문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 성경공부와 '묵상의 시간' 을 구별해서 다루어 주십시오.
- 강해설교를 하도록 하십시오.
- 새벽기도 시간을 더 개발하십시오.
- 심방을 훈련에 활용하십시오.
- 예배 시간에 '묵상의 시간' 을 뒷받침해 주십시오.
- 가정교육이나 가정예배에도 도입해 보십시오.
-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도자인 교역자들이 주의해서 생각하고 살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개발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마련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바르게 개발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개교회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좋은 교재들과 방법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입에 맞는 떡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교재를 무조건 채택하게 하여 맡겨 두어서도 안 됩니다. 내 교회의 사정이나 여러 계층의 신자나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내용(커리큘럼)을 짜실 때 거기에 적절한 교재나 방법을 활용하시고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도훈련 교재만 하더라도 대학생이나, 중고생이나, 장년이나에 따라서 달라야 하며 양육교재나 지도자(리더) 훈련이나 제자훈련 등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 교재가 중고생이나 성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또 강의식인지 토의식인지 일대일 양육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성서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성경」의 경우에도 초등학생용(저학년매일성경, 고학년매일성경), 중·고등학생용(청소년매일성경),

성인용(매일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용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맞지는 않습니다. 초신자나 놓여준 신자나 어떤 계층은 학생용이 더 적절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부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단체에서 간사가 와서 직접 얼마 동안 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 성경본문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신학교에서 배운 강의 내용과 평신도를 위한 성경공부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개론이나 조직신학 같은 것이 그대로 옮겨지면 곤란합니다. 신학교 교육은 교역자 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자체(본문) 공부이기보다는 성경본문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교역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보조공부(변두리 과목)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성경 본문을 가르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고 무미건조한 이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꽤 반응이 좋은 것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작으로 남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지 신학이나 학문이나 교리가 살아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리공부가 필요하지만 교리공부가 주제별로 학문화되어서 다루어지면 이미 생명이 죽어 버립니다. 마치 동물이나 곤충을 죽여서 해부해 보고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곤

충이나 동물을 관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 본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리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요한복음을 차례로 공부하면서 거기에 설명된 사상과 교리를 그대로 설명하는 방법이라야 합니다.

영어공부에 비교해 봅시다. 팔복사부터 배우는 식으로 문법 중심으로 공부하면 죽은 공부가 됩니다. 산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영어의 구조나 문법을 터득하게 해야 합니다. 영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살아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처럼 죽은 언어(死語)는 문법 위주로 공부해도 됩니다. 죽은 시체를 해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는 그렇게 배워서 안 됩니다.)

리더를 양육하실 때는 변두리 과목이나 이론적인 교리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양식으로 먹고 자라게 하려면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산 교육이 되지 못합니다.

☞ 성경공부와 '묵상의 시간'을 구별해서 다루어 주십시오.

성경공부보다는 '묵상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생명력이 있는 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성경공부의 알맹이와 생명은 '묵상의 시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개되지 않았었고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훈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교역자가 ‘묵상의 시간’을 할 줄 모르거나 훈련받으셨더라도 매일 실행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경공부의 희망이 없습니다.

성서유니온에서 출판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책을 참고해 보십시오. 영국 교회의 목회자 두 분이 쓴 책입니다. 우리의 목회 방법과 무엇이 다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이란 책은 훈련 교재로 아주 적절합니다. 주의할 점은 훈련교재이므로 한 번에 한 장씩 하지 말고 한 소지씩만 설명하고 각자 자신의 문제점을 토의해서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게 하고 다음 모임 때까지 각자 집에서 해 보게 한 후 일일이 점검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훈련되고 나면 성경공부의 정로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성경공부 방법도 훈련받을 수 있고 교인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 강해설교를 하도록 하십시오.

성경공부는 시키면서 주일마다 들려주는 교역자의 메시지가 제목 설교로만 머물러 있으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제목설교를 듣고 자라는 신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딪칠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묵상의 시간’이나 올바른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신자들은 제목설교 듣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

음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 강해설교는 어떻게 훈련받아야 할까요? 때로는 마태복음이나 어떤 성경 한 권을 선정해서 주석하듯이 훑어 내려가면 강해설교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풀이한다고 해서 본문설교(강해설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해설교의 개념이 이해되려면 '묵상의 시간' 부터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선 나에게 산 말씀으로 도전되어 와서 내 생활이 변화되고 있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강해설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강해설교는 설교의 한 기법이기 이전에 생명의 역사입니다. 즉 말씀을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목설교가 인간의 외침이요 인간의 도전이라면 강해설교는 하나님 자신의 외침이요 살아 계신 분이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강해설교가 정상적으로 잘 되면 그 강해설교가 제목설교가 할 일까지 다 해 버립니다. 제목설교도 강해설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 새벽기도 시간을 더 개발하십시오.

'묵상의 시간' 을 바로 하게 하려면 새벽기도회를 과감하게 개편해 보십시오. 새벽기도회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귀한 전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첫째로, 전에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능력이 없었지만 이

제는 많은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전에는 기도 시간으로 개발되었지만 이제는 성경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일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셋째로, 전에는 농경사회였지만 지금은 산업시대가 되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하시렵니까? 새벽기도회에 못 나오는 대다수의 신자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분은 시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거리가 너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시나 네 시 반만 할 것이 아니라 다섯 시에도 하고 다섯 시 반에도, 여섯 시에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회 운영도 '묵상의 시간'에 어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문맥)이나 배경이나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주고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시간을 주면 어떻습니까? 물론 '묵상의 시간'을 훈련하면서 유도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지 말고 켜 두어서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고 늦게 온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실내를 밝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당까지 못 나오는 사람들은 집에서라도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고 훈련하고 점검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급적 전 교우들이 같은 본문을 읽도록 읽기표를 공급하는 것이 훈련이나 관리면에서나 다 편리할 것입니다. 물론 기도 훈련까지 잘 해 주면 값지고 단맛을 보는 새벽기도회나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심방을 훈련에 활용하십시오.

대체로 심방을 하려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읽기표에 따라 그날 읽을 말씀을 아침에 읽고 묵상해 두었다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특별히 깨달았습니까? 오늘 아침 적용한 것이 있으면 간증하십시오” 등등의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하기도 쉽고(나도 ‘묵상의 시간’을 하고 있으므로) 훈련으로도 좋고 대화하기가 쉽습니다. 아침에 읽었다면 틀림없이 한두 마디는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해서 신앙 자세나 성장하는 모습이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신앙상담과 생활상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적용한 것을 간증하게 되면 상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그 반응과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의 목회에 중요하게 활용하십시오. 목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성도들과의 호흡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 예배 시간에 '묵상의 시간'을 뒷받침해 주십시오.

심방 때뿐 아니라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특강으로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부터 '묵상의 시간'에 이사야서를 읽게 된다면 그 전 주일 저녁예배 시간에 이사야서의 개관과 배경 그리고 중심 사상이나 해석 원리 등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사야서 개론격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도도 필요하고 도표나 연대표 같은 시각교재가 도움이 됩니다. 칠판이나 OHP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묵상의 시간'을 따라 하다가 중요한 사상이나 교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으면 주일 예배나 저녁 예배 때 그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제가 있어서 준비하기도 쉽고, 듣는 성도들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읽어 가는 중이므로 앞뒤 배경을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 가정교육이나 가정예배에도 도입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묵상의 시간'을 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충분한 자료가 없더라도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실시해 보십시오.

자녀교육은 부모의 잔소리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성경 말씀을 직접 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격려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놀라운 효력이 있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들과 같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고백하면 겸허해지고 솔직해지고 자녀들과 함께 빨리 성숙해 가게 됩니다. 해 보면 어린이들은 오히려 쉽게 배우고 익숙해지지만 부모가 더 훈련기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위주의 예배, 부모의 따분한 설교보다는 직접 자기 스스로 적용해 보고 발표해 보는(Sharing) 중에 참여 의식도 높아지고 진지해지면서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훈련 기간에는 교역자가 가정방문 했을 때나 주일학교 담임교사가 그 가정을 방문하게 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 교재 선정이나 본문 선정 또는 예배 진행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어린이용 ‘묵상의 시간’을 교재로 해야 하며 부모는 자기들을 위한 ‘묵상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매일 이러한 가정예배를 드리기 어려우면 매일 각자가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고 한 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라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면 좋습니다.

●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인에게는 아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도 잘 못하

는데 묵상까지 시키고 나누면서 간증한다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시작합시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선 한두 명의 신자라도 훈련이 되면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도시 교회에서는 1년 정도 훈련하면 여러 사람이 잘하게 되고 또 좋은 간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모범으로 소개도 하시고 간증도 하게 해서 점차 수를 늘려 가야 할 것입니다. 잘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질적 성장보다 양적인 성장에 너무 집착하면 훈련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묵상의 시간'을 도입해서 신자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들어야 함을 명심합시다. 한 심령이라도 살려야 하고 성장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큰 책임이 교회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후4:16).

10. 실습

- 사무엘상 3:1-21
- 시편 23:1-6
- 마가복음 1:29-39
- 빌립보서 2:1-11

구약에서 두 곳, 신약에서 두 곳 모두 네 곳을 선정해서 실습하도록 합니다. 첫번 째는 필자 자신의 개인 '묵상의 시간'으로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필자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 것들은 여러분이 할 것들입니다. 실제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에서 다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곳씩 하시기 바랍니다.

또 훈련받을 때는 시간이 좀 길게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는 좀더 간단히 그날 내 귀에 들리는 음성에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30분 정도는 시간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즉 기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말씀을 많이 접해야만 좀 단순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노력해야 합니다.

실습 1

• 본문 : 사무엘상 3:1-21

• 본문 내용 :

쉽게 생각하면 →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좀더 깊이 생각하면 → 말씀하시기를 중지하셨다가 다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1, 21절)

또는 →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엘리와 말씀을 듣게 된 사무엘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 → 거의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 12-14절을 보면 엘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듣고도(2:27-36)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용 → 나에게는 매일 어떤 책망이나 충고나 명령을 하시고 계실까? 나는 '묵상의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4,6,8,10절 →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적용 →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가? 못 알아듣지는 않는가?

12,19절 →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적용 → 지난 주일에 내가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가지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 자신부터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메시지를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왜 메시지를 전했으며, 그 메시지는 누구를 위하여 한 메시지인가? 교인들? 아니면 나 자신?

20-21절 → 사무엘을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적용 →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셔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을까? 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나는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는가? 내 사상을 전하지는 않는가? 과연 대언자(선지자) 노릇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내 감정을 폭발시키지는 않았는가? 내 지식을 자랑하지는 않았는가?

•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7절(감사) →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본 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적용 기도 →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만큼이라도 알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당신을 더 잘 알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10절(본받을 일) →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적용 → 나도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교인들에게 할 말을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 강의 준비에 쫓겨서 내가 들을 말씀은 못 들을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기도 → 주님, 제가 설교나 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듣는 ‘묵상의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13절(경고) → 엘리는 자기 자녀를 잘 교육시키지 않고 다스리지 못하여 그의 성직도 파면되었고 온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적용 →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 특히 나 자신이 강의하러 다니다 보면 저녁에 늦게 집에 돌아오고, 가정예배나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도 강의 준비나 원고 쓰기에 바빠서 아이

들과 시간을 잘 갖지 못하였다. 주일 오후와 저녁에라도 아이들과 시간을 내서 예배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 훈련과 생활 훈련을 하도록 해야겠다. 기도 → 하나님, 제 자식은 내버려 두고 남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는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좀더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적용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 교훈마다 바로 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을 충분히 못 내고 10분 정도만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될 때는 부득이 한두 가지 교훈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는 그 후에 적용해도 괜찮지만 정상적으로 할 때는 매번 적용하고 기록은 적용란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예처럼 다 적으려면 지면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필요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기도도 묵상이 다 끝나고 나서 한 조목씩 해도 좋고, 위의 예처럼 그때그때 기도해도 좋습니다. 훈련이 되고 자연스럽게 '묵상의 시간'을 할 수 있으면 매 교훈에서 듣고 바로 응답하는 것이 더 쉽고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실습 2

이번에는 실습을 위하여 여러분 각자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암시를 드리겠습니다.

- 본문 : 시편 23:1-6

- 본문 내용 :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

적용 →

(나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있는 양인가? 목자에게 전적으로 내 생애를 맡기고 부족함

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생활비는 누가 담당하시는가? 내가 벌어서? 성서유니온이? 어떤 후원자가? 아니다. 하나님뿐이시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목자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목회를 할 것이 아니다. 목회를 하나님께 넘겨 드리고 나도 목회를 받아야 하겠다. 성서유니온은 누가 총무인가? 누가 이사장인가? 누가 재정후원자인가? 누가 참 지도자요 목자인가? 가끔 나는 주재님은 생각을 하곤 했었다.

“하나님, 이제 저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에게 제 직장과 교회와 가정을 그리고 저 자신을 맡기고 따르겠습니다. 친히 목양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2절 →

(푸른 초장과 실 만한 물가는 어디일까?)

적용 → (그런 체험이 있는가? 지금 당장 내가 어디에 있는가?)

3절 →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적용 → (지금 이 '묵상의 시간' 에는 나를 어떤 말씀으로 소생시키시는가?)

4절 →

적용 →

(지난 해 성서유니온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갈 곳이 막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고 그래서 더 좋은 사무실과 함께 서점까지 주셨다. “하나님, 당신이 목자가 되셔서 지난해에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고 안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5절 →

적용 →

6절 →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선하신) 분이시며 인자하신 분이시다.

적용 →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묵상하고 나면 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 내게 주시는 교훈

2-3절(할 일) → 나는 목자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목자가 계시더라도 무의미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적용 → (반성하면서)

4절(피할 일) → 두려운 생각을 버려야겠다.

적용 → (그런 체험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는?)

6절(할 일) →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와
의 집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이라고 하셨으니(고전 3:16)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바
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되겠구나!

적용 → (하나님께서 과연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가?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시편 24편이나 15편을 참고하면서. 또는
오늘 시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이 여호와와 집에 거함이라 하겠다.)

- 기도(구체적으로)

실습 3

• 본문 : 마가복음 1:29-39

• 본문 내용 :

•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9절 →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마치 지금 한국교회 교역자가 심방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적용 → (예수님은 우리 집에도 찾아오신다. 환자가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믿음이 식은 때나 마치 교역자가 필요에 따라 교인 가정을 심방하듯이 때로는 내 직장이나 학교에도 찾아오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살피고 계시며 도와주고 계신다.)

31절 → 병을 고쳐 주신 예수님

적용 → (나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내 가정에
오시면 무엇을 도와주실까?)

기도 →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찾아오시도록 기도하자.)

34절 →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적용 → (나는 떠벌리고 자랑하고 하지는 않는가? 요즘 「매일성경」이 좀더 많이 구독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랑해야 할까? 잘못된 것 같다. 부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성경」을 권장하기만 해야겠다. 요즘 교인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자랑하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야겠다.)

35절 →

적용 → (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까? 나는 언제 기도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까? 예수님은 그 전날 피곤하게 일하시고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게을렀구나.)

기도 → ("주님, 내일부터 저도 좀더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적용 → (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을까? 나는 좁지도 않고 넓고 좋은 마룻방이 있는데도 어떤 날은 침실에

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있다. “하나님, 조용한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조용한 장소를 때로는 잘 찾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아멘.”)

적용 →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께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38절 →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들로 가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마을들로 가라는 지시를 받으신 것은 아닐까?

적용 → (나는 전도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고 지시를 듣고 하는가? 강의 요청을 받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인도받지 않고 즉석에서 대답한 적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대답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의해야겠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 여쭙어 보고 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아멘.”)

• 내게 주시는 교훈

30절(배울 점) →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적용 →

31절(할 일) → 병이 낫자 곧 일어나 수종들었다.

적용 →

32절(할 일) →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적용 →

38절(명령) →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
해야 한다.

적용 → (나는 다른 곳에도 눈을 돌리는가? 저 농어촌 지역
이나 학원이나 해외에까지?)

• 기도 →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쓴다.)

1.

2.

3.

4.

실습 4

- 본문 : 빌립보서 2:1-11

- 본문 내용 : 뜻을 합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심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운 본문일 때는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된다.)

6절(성자) → 하나님의 본체이심. 하나님과 동등이심. 그러나 동등된 신분을 버리심

7절(성자) →

8절(성자) →

9절(성부) →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최고의 명예를
주심

10절(성부) →

11절(성부) →

11절(성자) → 주(Lord)가 되심. (1절에는 성령님에 대한 설
명도 있지만 문장이 좀 복잡하므로 그냥 지나감)

적용 →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처럼 높이셨는지도
살펴본다.)

혹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살
펴볼 수 있다.

• 내게 주시는 교훈

2절(명령 또는 할 일) →

3절(경고) →

3절(할 일) →

4절(할 일) →

1.

2.

적용 → (위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내게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왜 이런 자세가 잘 되지 않는지 반성해 본다. 최근 있었던 일 중에서 이 말씀에 어긋난 일을 반성해 본다.)

1절(할 일) → (위 교훈들을 찾고 보니 1절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 아래에 정리해 보자.)

적용 →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5절 이하(본받을 일) →

적용 →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자.)
(나는 성서유니온 총무인데 왜 직원들 위에 높임을 받으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교인들이 나를 칭찬하고 높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게 있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까? 예수님을 좀 본받을 수는 없을까?)

기도 → “주님, 제가 좀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는 길을 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11절(할 일) →

적용 → (구체적으로)

5절 이하를 1-4절에 연결지어서 다시 살펴본다.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다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이때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먼저 나에게 적용한다.)

교리적인 내용일 때는 주의하지 않으면 지식적인 공부로 끝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나 성품이나 활동에서 내가 배울 교훈을

잘 찾고 하나님을 닮아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그만큼 내 신앙과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 기도 → (전체 마무리 기도)

어떤 구절은 쉽고 어떤 구절은 어려우며 어떤 구절은 문장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매일성경」의 해설에서 먼저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가급적 「매일성경」의 해설을 보기 전에 혼자서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성서유니온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1.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2. 읽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주의 깊게 천천히 읽으십시오.

3. 묵상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 내게 주시는 교훈이나 약속, 명령, 경고, 본보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내 개인, 환경, 인간관계, 내가 속한 세 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 「매일성경」에 있는 설명을 읽으십시오.

4. 기도

묵상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 깨달은 말씀을 토대로 찬양을 드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 기도제목들을 묵상일지에 기록하십시오.

5. 나눔

깨닫고 적용한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서로 격려하십시오.